

고창군, 2026년 농업 대전환... '품종·브랜드·인프라' 3대 혁신 추진

품종 혁신부터 친환경 농업까지... 고창 농업 경쟁력 강화 나서

전북 고창군이 현장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영농 편의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펼친다.

2026년 고창군농업기술센터의 '품종·브랜드·인프라' 3대 혁신을 중심으로 한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들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고창복분자재배

쌀 품종의 세대교체, 브랜드 쌀 '수광' 본격 전환

고창군은 2026년부터 기존 브랜드 쌀인 '수광' 품종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한 '수광1품종'을 농가에 본격 공급한다. 수광1은 탈립성, 도복, 병해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신품종이다. 지난해 10월 품종 등록을 마쳤으며, 최고품질쌀 품종으로도 공식 등록되어 고창 쌀의 브랜드 위상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수박, '인증' 넘어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름값 높인다

이미 지리적표시제와 GAP 인증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고창수박은 2026년부터 '지리적표시 기반 고창수박 브랜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제값을 받

는 유통 구조를 만든다. 단순 인증을 넘어 생산부터 유통까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저탄소 농업 인증을 더한 '인증 3관왕'을 달성해 소비자가 이름만 보고도 믿고 구매하는 최고급 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 고창 아열대 작목 집중육성

고창군은 기후 온난화에 대비해 한라봉, 애플망고 등 7개 아열대 작목(3.72ha)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단순 시험 재배를 넘어 2026년부터는 '아열대 과수 소득화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입, 실질적인 농가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복분자 고사 위기 극복, 현장 실증과 신품종 개발 병행

지역 특화 작목인 복분자의 고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기술 대응책을 강화한다. 저온성 멸칭 필름 실증으로 토양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2026년부터 '절단 육종기술 기반 차세대 복분자 신품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 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을 통해 고창 복분자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시 세울 방침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장 밀착 농정으로 경쟁력 높인다

군은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

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말까지 전격 연장하고 이와 함께 2026년에도 소형특수농기계(50평) 및 드론 자격(32명) 취득 교육을 이어가며 정밀 농업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영농부산물 무료 파쇄 지원사업'을 산림 연결지를 중심으로 부산물을 직접 파쇄해 산물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선다. 격오지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 수리'를 통해 농기계 정비와 기술 지도를 병행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할 계획이다.



▲고창군유용미생물비료배출

유용미생물, '공급 체계 확대'로 친환경 농업을 선도한다

고창군이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의 핵심인 유용미생물 공급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군은 총 12억 원

을 투입해 흥덕면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에 '북부권 미생물 자동 공급시설'을 신축한다고 밝혔다. 연간 1,100톤 규모의 미생물을 생산 중인 고창군은 그간 원거리 농가를 위해 '바로배송'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나, 북부권(성내·신림·부안·흥덕)의 수요 급증으로 공급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신축되는 시설은 20여 톤 규모의 저장시설과 키오스크 자동공급 시스템을 갖춰 '주 5일 상시 공급' 체계로 운영된다. 시설이 완공되면 북부권 농가들은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할 때 즉시 미생물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기존 배송 서비스의 과부하 해소로 군 전역의 공급 효율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가축분뇨 퇴·액비 '중금속 항목' 무료 분석 지원 확대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2026년부터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법정 검사 전 항목을 무료로 분석 지원하며 축산 농가의 시름 덜기에 나선다.

기존 가축분뇨 분석실에서는 부속도와 함수율만 무료로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가축분뇨법'시행령에 따라 중금속(구리·아연)과 염분 항목



▲농산물분석팀 중금속분석

을 추가해 분석 범위를 전 항목으로 확대한다. 축산농가는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할 필요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정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살포를 지도하여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성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품종 혁신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2026년은 고창 농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사업의 중심을 현장 농민에 두고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전남농기원, 농작업안전관리자 위촉...농업 현장 중대재해 예방 나서

농기계·시설 안전 점검과 맞춤형 교육 추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 8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농작업안전관리자는 화순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 등 4개 시군에 2명씩 배치되며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 1월 심층면접을 통해 안전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안전관리자 운영 방향 설정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 체계 구축, 사업 추진 상황 관리 및 성과 정리 등 총괄 지원 역할을 맡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농업 분야에서

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업 현장은 고령 농업인 비율이 높고 농기계·시설하우스·고소작업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작업안전관리자들은 권역별

전담 관리체계를 통해 올해 11월 중순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농작업 및 농업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농기계·시설·작업 환경 안전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농업인 및 농업종사자 대상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사고 예방 컨설팅 및 개선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5인 이상 소규모 농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이행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제공해 법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응 농작업안전관리자8명을 위촉했다(전남농기원 제공)

인천시, 수봉근린공원 '스카이워크' 이달 전면 개방

공중 산책과 360도 도심 조망 가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추홀구 수봉근린공원 내 폭 1.8m, 총연장 310m 규모의 '스카이워크' 조성을 3월 중순 완료 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선8기 10대 정책분야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총 5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는 스카이워크 조성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에 위치한 수봉공원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카이워크는 당초 타워형 전망대 형태로 계획됐으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형을 최대한 살려 공원 상부에서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트리탑 트레일'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됐다. 현재 마무리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

다. 지형에 따라 최대 20미터 높이가 설치되는 이 시설은 이용객이 마치 공중을 걷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천 도심의 360도로 감상할 수 있어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야간 경관조명, 인공폭포 등과 어우러져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 명소

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조 시 도시경관국장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라며, "인천의 근현대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장소에서 새로운 휴식과 조망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감도

손쉽게 만나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을 한눈에!

우리가족 건강밥상에 올라오는 안전한 농산물 이야기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락시장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www.garak.co.kr

